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조성욱*

Problem and Alternative of Construction on Economic Geography Contents in Geography Curriculum

Sungwook Ch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교육내용 설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 방법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과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초중고 교육과정의 경제지리 교육내용 설정에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경제활동 부분이 경제영역으로 흡수되었으며, 중학교 과정은 고등학교와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통사회 과목은 통합과정으로 구성될 경우 계열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한국지리 과목은 계속 2개 대단원으로 설정되어 왔으며, 세계지리 과목은 입지보다는 세계화와 이동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경제지리 과목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었다. 둘째, 기존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문제점으로, 교육내용 선정 측면에서는 학문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고, 단위 제목은 핵심 주제 중심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론서와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문과 교육내용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 제시 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단위 제시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내용 조직 방법에서는 교육내용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 학문중심의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내용전개가 하향식의 설명식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 특히 지역개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셋째, 새로운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의 대안으로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과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에서는 학습자인 ‘나’와 ‘우리나라’를 기본 틀로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전체 구조를 제시하였다.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으로는 인식하기 ⇒ 의문 갖기 ⇒ 의문 해결하기의 3단계 내용전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경제지리 교육내용,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 changes and analyzed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problems in the subject of economic geography at the secondary education level. Furthermore,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strategy in which the learner-centered storytelling and inquiry-based problem solving are combin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mposition of the economic geography content, the part relevant to economic activities was subsumed into the economics-related units at the elementary education level,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equence between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ducation levels. If the common social subject is developed as an integrated course, the establishment of the sequence is expected to be problematic. The subject of Korean geography has included two-units of economic geography-relevant contents, the subject of world geography emphasizes globalization and movement, and the subject of economic geography has increased its content about tertiary industries. Second, a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economic geography subject, this study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w@jbnu.ac.kr)

argued that the content should be chosen from a learner-centered perspective, the unit title should focus on the key themes, and the approach from the present to the past needs to be adopted. To fill in the gap between the discipline of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contents, a new unit name should be used rather than providing specific concepts. Other problems include the fragmentation of contents, the discipline-centered framework, top-down structure, an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art. Third, as an alternative for the economic geography curriculum, this study suggested a strategy of the learner-centered storytelling and inquiry-based problem-solving. The former provided the framework in which the learner “me” and “my nation” play a crucial role. The latter offered a three-step strategy: recognition-question-solution.

Key Words : Economic geography educational contents,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Storytelling construct method of a learner-centered, Issues explored construction method

I. 서론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는 기존 내용의 검토와 조정, 학문적 연구 성과를 고려한 새로운 내용의 추가, 변화하는 현실의 반영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리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각론 수준에서의 검토와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각론 또는 영역별 수준에서 교육 목표 및 교육내용의 상세화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학문과 교육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각론 수준에서의 교육내용 점검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항상 촉박하게 이루어져 왔던 교육과정 개편 기간에 교육내용의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교육내용과 구성방법에 대한 검토와 대안의 모색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학습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학문의 발전과 교육내용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학습자에게는 과목 학습의 유용성을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종합적인 작업이다. 또한 학문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재구조화하고 재구성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수학적 변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지리교육과정 중에서 경제지리 교육내용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현행 교육과정의 경제지리 교육내용은 1950년대와 60년대의 신고전주의적인 접근과 입지론 그리고 그 이후 1980년대까지의 행태적 접근에 많은 비중이 주어지고, 1990년대 이후의 학문성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교육내용의 구성 방법에서도 1, 2, 3차 산업 중심, 생산자 중심, 학문중심의 틀로 제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경제지리 교육내용 관련 연구로는, 고등학교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법을 검토한 연구(조성욱, 2000)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발간된 2종의 경제지리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한 연구(최원희·윤영오, 2004),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지역개발 단원의 서술 방법을 분석한 연구(서민철, 2007), 그리고 고등학교 경제지리 과목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밝힌 연구(안종욱, 2012) 등이 있다. 또한 교과서의 새로운 구성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드라마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제안한 연구(송언근, 2012)와 지리교과서에 서술된 내러티브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조철기, 2011, 2013), 영국 세계지리 교과서를 분석하여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교과서 구성을 제안한 연구(손명철, 2013)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육과정 중에서 경제지리 교육내용에 한정하여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설정되었던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첫째, 교육과정에 설정된 경제지리 교육내용을 비교하고,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6차 교육과정(1992년), 7차 교육과정(1997년), 2007 개정 교육과정(2009년), 2009 개정 교육과정(2012년) 등 4차례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리영역과 고등학교 공통사회(10학년),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경제지리 교육내용 그리고 경제지리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경제지리학 개론서의 구성과 교육과정 상의 경제지리 교육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학문의 흐름과 교육내용 설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내용 선정의 문제점을 추출한다.

셋째, 교육내용 구성 방법의 대안 마련을 위하여 기존

교육과정 경제지리 교육내용 조직 방법의 문제점을 추출한다.

넷째, 추출된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 방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선정과 구성 방법의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리 구성 방법의 대안을 제시한다.

지리 교육과정 상에서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연구 범위는 1차, 2차, 3차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및 그에 따른 지역변화, 그리고 지역개발 및 환경문제로 한정한다. 인구문제 역시 노동력으로서 경제지리 교육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도시 및 인구 변화 내용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II. 기존 경제지리 교육내용 설정 검토

1. 초등학교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변화

초등학교 과정에 설정된 경제지리 교육내용을 4차례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살펴보면(표 1), 먼저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는 3, 4, 5학년 과정에서 1, 2, 3차의 주요 산업 및 지역개발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2007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개발 내용은 남아 있지만, 1, 2, 3차 산업 활동에 대한 내용은 '경제' 영역에 모두 흡수되어 버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에서는 '물자의 생산', '상점과 시장', '산업과 생활', '교통과 생활', '주요 산업과 우리 생활', '국토 가꾸기와 환경 보전'으로 산업 활동과 지역개발 및 환경 보전 내용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 역시 '고장의 주요 산업', '시장과 물자'

동', '터미널과 교통', '지역의 자원과 생산 활동', '물자의 유통과 상호의존',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내용이 설정되어 6차 때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경제지리 관련 내용이 경제 관련 단원('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으로 모두 통합되고, 지역개발과 환경문제 내용만 지리교육내용으로 남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지리 교육내용이 경제 단원('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우리 경제의 성장')으로 모두 흡수되고, 1단원('우리가 살아가는 곳')의 소단원으로 '(4) 우리 지역의 주요한 산업을 사례로 우리 지역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와 대단원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단원만이 경제지리 관련 단원으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경제지리' 교육내용이 '경제' 영역으로 흡수되어, 각 산업별 경제 활동과 그에 따른 지역 형성과 지역 변화 내용이 사라지고, 지역개발 부분만 지리영역으로 남아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지역적 특성을 교육과정에서 전혀 언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 지리 영역의 축소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 중학교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변화

중학교의 경우 1학년은 지역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리교육내용이 주제별로 설정되어 있는 3학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표 2). 6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공업지역과 환경문제', '인구 및 자원 문제', '지역개발'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원 문제', '공업 발달과 공업 지역'을 내용으로 하여 1차과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2007 개

표 1. 초등학교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변화

시기별 학년별	6차(1992)	7차(1997)	2007개정(2009)	2009개정(2012)
3학년	(2) 고장 사람들의 물자 생산과 그 이용	(1) 고장의 모습과 생활 (2) 고장 생활의 중심지	-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8)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4학년	(2) 우리 시·도 사람들의 생활	(1)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4)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5학년	(1) 산업과 경제 생활 (2) 살기 좋은 우리 국토	(1) 우리 국토의 모습	(2)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2) 우리 경제의 성장
6학년	-	-	(3)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 이탤릭체 부분은 '경제' 영역의 단원임.

정에서는 ‘자원 문제’, ‘농업, 광업, 공업, 서비스업’의 입지와 지역변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이용’, ‘농업 및 공업의 글로벌화와 지역변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교육과정별로 설정 내용의 유동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자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과 공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 중심으로 내용이 선정되어 왔다. 특히 2009 개정에서는 산업 활동의 틀을 따르기 보다는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이 선정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과 환경문제는 7차 이후에는 설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만의 자체 완결성이 부족하고,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일부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 과정의 경제지리 교육내용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분담체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3. 고등학교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변화

1) 공통사회(10학년)

고등학교 10학년 공통사회의 경우 계속적으로 2개 대단원을 경제지리 교육내용으로 배정하고 있다(표 3).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뀐 점과 통합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차부터 2007 개정교육과정까지는 1, 2, 3차 산업과 지역개발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간 변화와 대응’, ‘세계화와 상호의존’,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과 같이 전통적인 산업 분류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전

통적인 학문 내용보다는 사회와 교육내용의 통합에 의해 구성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 ‘1차 산업’, ‘공업’, ‘상업과 서비스업’, ‘국토 개발’, ‘환경보전’과 같이 전통적인 방법을 틀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7차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이 축소되어 ‘공업 및 서비스업의 입지’, ‘입지요인 변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으로 산업별 활동 중에서 1차 산업 부분이 누락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체계성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중학교 3학년 과정과 고교 1학년 과정의 공통사회는 별도의 구성보다는 하나의 세트(set)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중고 연계성과 내용의 중복을 피하면서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지리

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설정된 한국지리 과목은 ‘(3) 생활권 형성 기능’ 단원에서 1, 2, 3차 산업의 특징을 제시하고, ‘(4)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단원의 일부로 지역개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표 4). 즉, 2개의 대단원 중 1개 대단원은 1, 2, 3차 산업 활동의 입지와 입지변화를 제시하고, 또 하나의 대단원에서 지역개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007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2개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1, 2, 3차 경제활동과 지역개발 내용을 설정하고 있어서, 경제지리 교육내용 설정에서 큰 변화는 없다.

표 2. 중학교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변화

시기별 학년별	6차(1992)	7차(1997)	2007개정(2009)	2009개정(2012)
3학년	(5) 공업화, 도시화와 환경문제 (6) 자원 문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5) 자원 개발과 공업 발달	(1) 자원의 개발과 이용 (2) 산업 활동과 지역 변화	(9)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11) 자원의 개발과 이용

표 3. 공통사회(한국지리) 과목의 경제지리 교육내용 변화

시기별	6차(1992)	7차(1997)	2007개정(2009)	2009개정(2012)
대단원	(11) 경제활동의 지역구조 (12)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	(3)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4)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4) 장소 인식과 공간 행동 (5)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4) 환경변화와 인간 (5) 미래를 보는 창

표 4. 한국지리 과목의 경제지리 교육내용 변화

시기별	6차(1992)*	7차(1997)	2007개정(2009)	2009개정(2012)
대단원	11) 경제 활동의 지역구조 12)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3) 생활권 형성기능 (4)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5) 생산과 소비의 공간 (8) 삶의 질과 국토의 과제	(5)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8)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 6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사회(한국지리)로 설정되었음.

3) 세계지리

세계지리 과목은 6차와 7차에서는 지역 중심으로 구성한데 비하여,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서는 주제중심으로 구성하면서, 경제지리 교육내용이 부각되고 있다(표 5).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개 대단원에 설정되었는데, '자원의 국제적 이동', '다국적 기업의 의한 생산', '경제블록' 등 입지와 지역변화보다는 세계화와 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원, 농업, 공업, 국제적 분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세계지리 과목에서 지역개발 부분은 설정되지 않고 있다.

4) 경제지리

경제지리 과목은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서만 존재했는데, 모두 6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표 6). 두 번 모두 6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지만, 2007 개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의 자원과 공업 생산을 '생산'으로 묶고, 서비스 산업을 1개에서 2개 단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산업으로 중점이 이동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1, 2차 산업의 기술 내용을 줄이고, 3차 산업의 내용 비중을 늘렸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내용 선정은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총합이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하게 될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범위 설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 20년 사이(1992년~2012년)에 이루어진 4차례의 교육과정 내용 변화에서 나타난 경제지리 교육내용 설정의 특징을 초중고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산업 활동 중심의 경제지리 교육내용이 '경제' 영역으로 편입되어 사라지고, 지역개발 부분만 남아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주로 자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과 공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이 설정되어 있으나, 배정원칙이 불안정하고 고등학교 과정과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먼저 10학년 공통사회(한국지리)의 경우 경제활동 영역 1개 단원과 지역개발 영역 1개 단원으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지리 과목 역시 경제 활동 영역 1개 단원과 지역개발 영역 1개 단원으로 2개 단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세계지리 과목은 6차와 7차에서는 지역적 방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역할이 미미했으나, 2007 개정 이후에는 주제별 방법에 의해 구성하면서 세계화와 이동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영역은 별도로 설정되지는 않고 있다. 경제지리 과목은 7차와 2007 개

표 5. 세계지리 과목의 경제지리 교육내용 변화

시기별	6차(1992)	7차(1997)	2007개정(2009)	2009개정(2012)
대단원	(2) 세계의 인문 환경 (8) 세계의 과제와 미래	(1) 세계와 지리	(4) 경제활동의 세계화 (6) 갈등과 공존의 세계	(5) 경제활동의 세계화

표 6. 경제지리 과목의 대단원 변화

시기별	7차(1997)	2007개정(2009)
대단원	(1) 경제활동과 지역발전	(1) 경제활동의 지리적 이해
	(2) 자원과 자원 문제	(2) 생산의 지리적 특성
	(3) 공업과 무역	
	(4) 서비스 산업	(3) 유통과 소비의 지리적 특성
	(5) 지역개발과 환경문제	(4) 정보 사회의 경제활동
	(6)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
		(6)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정에서만 개설되었는데, 모두 6개 대단원으로 1, 2, 3차 산업과 지역개발 영역을 모두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III. 기존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의 문제점

1. 교육내용 선정에서의 문제점

2007 개정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표 7), 총 6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생산(농업, 공업), 유통(상업, 무역), 서비스업(정보, 문화, 관광) 그리고 지역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원을 포함한 1,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었고, 3차 산업을 상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리해서 비중을 늘렸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지리 교육내용 설정에서의 문제점은, 먼저 경제지리학의 학문 발전과 관심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고

전주의적인 접근 방법과 입지론에 치중하고 있다(안영진 등, 2011: 456). 농업의 입지, 공업의 입지, 상업의 입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튀넨의 고급국 이론과 베버의 공업 입지론 그리고 크리스탈리의 중심지 이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 선정은 1990년대 이후 경제지리학의 발전과 관점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르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제인을 전제로 하는 고전주의적 접근 방법은 현실 생활을 설명하는데 제한을 두게 되고, 객관성을 강조하게 되어 논쟁의 가능성을 없애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경제지리 내용선정에서 그동안 비판 받아왔던 분포 중심(나열 중심)에서 입지론 중심(이론 중심)으로 변화한 것에 만족하고, 이 후 이루어진 새로운 학문 경향을 도입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성과 생동감이 부족하고 토론과 논의의 여지보다는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입지론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과 함께, 3차 산업의 비중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사회의 경제활동을 별도의 단원으로 설정했지만 교과서 수준에서 내용

표 7. 2007 개정(2009년) 경제지리 교육내용

단원(6)	주요내용(40)	
1. 경제활동의 지리적 이해	① 경제활동의 역할, 지리적 특성 ③ 지역별 경제활동의 차이 ⑤ 산업구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② 자원의 의미와 특성 ④ 산업구조의 변천과정
2. 생산의 지리적 특성	① 농업 요인과 농업 입지 ③ 산업화와 농촌 문제 ⑤ 공업 자원의 분포와 이동 ⑦ 노동력의 이동 ⑨ 기업의 공간적 분업, 다국적 기업	② 농업 활동의 지역 비교 ④ 농업 활동과 환경 ⑥ 공업 입지 요인 변화 ⑧ 공업 지역의 형성과 변화 ⑩ 신산업 지구와 지역혁신체제의 형성
3. 유통과 소비의 지리적 특성	①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 ③ 소비유형 변화와 도소매업 입지 ⑤ 무역과 지리적 조건 ⑦ 무역 환경의 변화	② 상업 입지 이론 ④ 상업 활동과 지역 변화 ⑥ 무역구조의 변화와 지역
4. 정보사회의 경제활동	① 정보사회의 특성 ③ 정보 및 지식 산업의 특성 ⑤ 문화 및 관광 산업의 특성 ⑦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② 서비스업의 입지 요인 및 변화 ④ 정보 및 지식 산업의 입지 요인 ⑥ 문화 및 관광 산업의 지역 영향
5.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환경 보전	① 지역개발의 의미 ③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⑤ 자원개발, 도시화, 산업화와 환경문제 ⑦ 통일 대비 국토계획	② 지역개발 방법 ④ 지역개발과 지역갈등 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활용
6.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① 세계 경제 환경 변화 ③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적 관계	② 세계화와 지역화 ④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구성이 충실하지 못했던 점, 지역개발 영역을 너무 도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1, 2, 3차 산업의 연계성 고려가 미흡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지리 교육내용 설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경제지리학 개론서를 비교해 본다. 분석에 사용된 개론서는 박삼옥(1999)의 「현대경제지리학」, Coe & Kelly & Yeung(2006)의 *Economic Geography*(안영진 등 역, 2011, 「현대 경제지리학 강의」), 한주성(2009)의 「경제지리학의 이해」, 이희연(2011)의 「경제지리학」 등의 경제지리학 개론서와 인문지리학 개론서인 Rubenstein, J.M.(2010)의 *Contemporary Human Geography*(김희순 등 역, 2010, 「현대 인문지리」) 등 5종이다.

먼저 박삼옥(1999)의 ‘현대경제지리학’은 7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표 8), 이 중 자원 관련 단원이 1개, 공업입지와 구조변화가 3개 단원에 걸쳐 서술되고 있으며, 세계화와 지방화 1개 단원, 지역개발 1개 단원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7개 단원 중에서 3개 단원을 공업의 경제활동으로 배정하여 공업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Coe & Kelly & Yeung(2006)의 *Economic Geography*는 전통적인 개론서와는 다른 틀로 구성하고 있다(표 9). 경제공간의 역동성 측면, 경제 공간의 주체별 접근, 경제활동의 사회화 등으로 구성하여, 입지론이나 분포와 이동 보다는 불균등 발전, 경제활동의 사회화 등 현실세계의 이해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주성(2009)의 「경제지리학의 이해」는 5개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표 10), 경제현상의 기초 활동으로 자원,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1개 단원으로 기술하고, 산업의 공간체제라는 대단원에서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의 입지와 변화를 기술하고, 지역개발에 1개 단원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희연(2011)의 「경제지리학」은 8개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표 11), 세계 경제의 변화(1 단원), 인구(1 단

표 8. 박삼옥(1999), 「현대경제지리학」

대단원	세부내용
1. 현대경제지리학의 이해	경제지리학의 관점
2. 세계의 자원과 환경	자원과 환경, 세계자원의 개발과 이용
3. 경제활동의 입지결정 원리	전통적 입지이론, 기업조직과 기술변화, 첨단기술산업의 입지
4. 경제구조재편과 경제공간조직	산업구조재편, 생산자서비스의 성장
5. 신산업지구의 형성과 발달	신산업지구의 형성
6. 경제의 세계화 지방화와 세계 경제공간조직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화, 해외투자, 지방의 국제화
7. 지역경제개발 정책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개발, 친환경 산업정책

표 9. Coe & Kelly & Yeung(2006), *Economic Geography*

대단원	세부내용
1. 개념적 기반	경제에 대한 지리학적 관점, 차이의 세계
2. 경제 공간의 역동성	불균등 발전, 상품 사슬, 기술과 집적, 환경과 경제
3. 경제 공간의 주체	국가, 다국적 기업, 노동력, 소비
4. 경제생활의 사회화	문화와 기업, 젠더, 소수민족의 경제

표 10. 한주성(2009), 「경제지리학의 이해」

대단원	세부내용
1. 경제지리학의 본질과 연구방법의 발달	
2. 경제현상의 공간적 기초 활동	자원, 자본, 노동력
3. 산업의 공간체제	농업입지, 공업입지, 유통 및 서비스입지, 중추관리기능. 교통 및 정보 네트워크, 문화산업, 재활용 사업
4. 경제지역과 지역개발	경제지역, 지역개발
5. 경제지리학 통계분석의 기초	

표 11. 이희연(2011), 「경제지리학」

대단원	세부내용
1. 세계 경제환경의 이해와 경제지리학의 발달	
2.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발전	경제의 세계화, 지방화(장소마케팅)
3. 인구와 노동력	인구와 경제, 인구성장과 노동력 구조, 노동의 분업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4. 식량 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현황	자원 개념, 식량자원, 에너지 자원
5.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경제성장과 기술혁신, 현대농업, 지구온난화
6. 교통·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경제공간의 변화	시공간의 수렴화, 교통망 구조와 운송비, 디지털 격차, 공간구조 변화
7. 입지요인과 산업입지론	입지요인 변화, 고전적 산업입지론, 신산업입지론
8. 세계화되고 있는 제조업과 한국 제조업의 변화	후기 산업사회와 입지변화, 공업활동의 세계화

표 12. Rubenstein(2010),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단원	내용 구성
9(개발)	인적개발, 개발지표, 무역을 통한 개발
10(농업)	농업의 분포, 농업의 유형, 농업이 직면한 문제
11(산업)	산업의 기원과 분포, 산업의 상대적 입지조건, 산업의 절대적 입지조건
12(서비스 활동)	생산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14(자원문제)	자원고갈, 자원오염, 자원보전과 재생

원), 자원(1 단원) 그리고 경제성장과 환경문제(1 단원), 경제 공간의 변화(2 단원), 입지요인의 변화(2 단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판(1997년)에서와는 달리 지역개발 부분은 빠져있다.

Rubenstein(2010)의 「현대 인문지리」는 1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9장(개발), 10장(농업), 11장(산업), 12장(거주공간과 서비스 활동), 14장(자원문제) 등 5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제지리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2). 지역개발을 경제활동보다 앞서 배치한 점과 거주공간과 서비스업을 같은 단원에 구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대안교과서인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2011)의 2권(인문지리)은 5개 단원으로 인문지리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중 4단원(지리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이 경제지리 관련 단원이다(표 13). 7개의 소단원 중 3개 단원이 자원내용으로 비중이 높다는 점, 산업의 변화와 직업을 연계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과 같이 최근에 출간된 개론서 및 대안교과서의 경우 저자들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단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단원 구성에 직접적으로 대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론서를 살펴 본 결과, 교육과정의 단원구성은 저자별 특성이 많이 반영된

표 13. 전국지리교사연합회(2011),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권 (인문지리)」

대단원명	중단원명
IV. 지리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1. 인간의 필요가 자원을 만든다
	2.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해
	3. 발상의 전환이 자원을 만든다
	4.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
	5. 위기의 산업, 농업
	6. 수공업에서 첨단 산업까지, 공업의 세계
	7. 보이지 않는 산업, 서비스 산업

개론서의 틀을 그대로 따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점, 학문적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단원 구성 방법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단원의 제목을 개론서와 같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나열적인 방법보다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개론서의 구성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진행되는 데에 비해서 교육과정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학문발전 방향과 교육과정의 간극을 줄이고 최신의 연구 결과를 교육과정에 원활하게 반영하기 위해

서는, 구체적인 개념이나 사실보다는 최신 경향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구성 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최신의 학문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원활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단위 설정 방법이 더 중요하다.

2. 교육내용 조직 방법에서의 문제점

기존 교육과정의 조직 방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학문중심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학습자의 일상생활과의 괴리로 인하여 학습내용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과목 학습의 유용성을 느끼기에 부족하며, 학습자인 내가 중심이 아니고 타자의 구성 틀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과정에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게 된다. 초중고에서의 학습내용은 학문내용 자체보다는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성을 보여주어, 학문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을 전공하지 않을 학생들에게 학문의 틀을 주입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경제지리학'과는 달리 '경제지리교육'은 경제지리의 학문내용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교수학적 변환과정을 거쳐 학습자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 때에 관점을 지리학자가 아닌 학습자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제지리 교육내용 조직 방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내용이 대단원 또는 중단원 수준으로 파편화되어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습자 보다는 학문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단원간과 단원 내 뿐 아니라 초중고의 교육내용 계열성에서도 이러한 단절이 나타나는데, 특히 초중고의 계열성 부족은 지리교육 자체의 문제보다는 사회과의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중고의 교육내용 중복과 전체적으로 체계성 있는 교육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를 중심으로 단원 내 또는 단원 간 스토리를 구성하여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토리 구성 방법에서 단순히 학습자 중심만을 강조할 경우 체계적인 학습이 어려워지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목 또는 교육내용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때 학문중심으로 전체적인 틀을 정한 이후에 학습자를 미

시적인 수준에서만 고려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백과사전식 나열 방법, 설명 위주 방법, 단원내용의 파편화, 그리고 생산자 중심의 내용 설정이다. 즉, 학습자의 주체적인 탐구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따라오도록 하는 형태의 교육내용 조직 방법이 된 것이다.

셋째, 내용전개에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측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등과 같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제시하고 있어서, 학습의 출발점이 학습자가 아니라 하향식의 설명식 구조로 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 방법은 논의나 토론 그리고 탐구심의 유발 보다는 설명식의 수업 방법을 유도하게 만든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목표는 경제지리 교육내용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학문적인 틀을 심어주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유용성을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에 대한 학습의 경우 처음부터 다국적 기업의 분류나 특징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의 일상 세계에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물건을 생산하고, 왜 그런 방식으로 생산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접근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학습자에게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암기하게 만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단원은 지역개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개발 부분은 지역개발의 의미, 방법 등과 같이 원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어느 부분보다 학습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지역개발 전후의 지역변화를 보여주고, 왜 이렇게 변했는가, 어떤 방법이 도입되었는가 등의 귀납적 방법에 의한 기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연역적이고 설명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초중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서의 경제지리 교육내용은 학문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경제지리 학습이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실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학습자가 학습내용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더 학습하고 싶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과 생활중심에 너무 치중할 경우 이러한 방법의 단점인 체계적인 교육내용 전달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습자의 현실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경제지리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해결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지리 교육내용 학습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결국 이상적인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구성 방법은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기점으로 교육내용을 배열하고 구성하는 접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학습자에게 경제지리학의 학문 내용을 소개해 주는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경제지리 학습내용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형성시켜 주고, 일상생활의 의사결정에서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새로운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

1. 새로운 방향 설정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추출해 보면, 첫째, 학문적 발전과 관심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증주의에 기반한 입지론 중심의 내용 뿐 아니라, 인간주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까지를 자유롭게 담아낼 수 있는 구성틀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학문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교육내용으로 변환시켜 제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문내용을 교육내용으로 변환시키는 교수학적 변환이 필요하다. 1, 2, 3차 산업의 경제활동 틀로 구성되는 교육과정 구성 방법과 특히 지역개발 단원에서 학문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식과 설명식으로 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내용의 구성에서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학습자인 '나'를 시작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학습자는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의 자원과 생산 → 유통과 소비의 구성 틀이 아니라, 거꾸로 소비 → 유통 → 생산의 틀로 교육내용 배열의 시작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체적인 틀 내에서 초중고의 교육내용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과라는 틀 속에 존재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초중고의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내용 중복을 최소화하고 의미있는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서는 학교급별 교육내용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방향 설정에서 핵심은 전체적인 구성 틀에서 학습자 중심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과서 구성이나 교수 학습 상황에서 설명식이나 나열식이 아닌 학습자의 탐구에 의한 학습 전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손명철(2013)은 영국의 세계지리 교과서의 특징으로 학습자 주도적인 교과서, 탐구형 교과서라는 특징을 추출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에 대한 연구이지만 교육과정 구성은 학문적 내용, 교과서 구성, 교수 학습 상황, 평가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 주도적인 교과서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각 장의 시작 부분에 학생의 역할과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명시하는 방법과 각 장의 전체 내용 요소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개하는 스토리가 있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송연근(2012)은 교과서를 시나리오로 보고 거시적,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메시지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적 지리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문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학문내용 순서에 의한 교육내용의 파편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연결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연결 방법은 학습자인 내가 시작점이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탐구형 교과서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각 장마다 3개씩의 핵심질문을 제시하여 사회과학적 탐구절차를 보여주는 방법과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과 지식구조를 잘 보여주는 자료와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손명철, 2013). 즉, 학문 중심의 나열식 방법과 교사 중심의 설명식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교육내용을 탐구

해 가는 방법으로 교과서의 구성과 교수-학습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내용의 파편화와 나열식과 설명식의 교과서 구성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과 학습자 스스로 탐구해 가는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을 대안으로 고찰해 보고, 이러한 구성방법에 기반하여 새로운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새로운 교육내용 구성 방법

1)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은 먼저 학습자인 '나'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연계과정을 탐색하면서, 각각의 입지요인, 변화, 지역에 대한 영향,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탐구해 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스케일을 내가 속한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단위로 확대하여 외국과의 무역 및 생산 연계, 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첫째, 학문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내용 구성이 가능하다. 둘째,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서의 학습자를 상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단원별 파편화된 교육내용을 교과서 전체 또는 단원별로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할 수 있다. 넷째, 백과사전적인 나열식 내용제시에 의한 설명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을 도입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경제활동의 접근방법 변화이다. 기존의 접근 방법이 '자원 → 생산(변환) → 유통 → 소비'의 틀이었다면, 새로운 접근 방법은 학습자인 '나'를 중심으로 '소비 → 유통 → 생산'의 틀로 교육내용을 배치하게 된다는 점이다. 학습의 전과정이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열적인 내용보다는 학습자인 내가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 진행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탐구심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구입하는 상품(또는 서비스)은 농산물(쌀, 과일, 과자 등), 공산물(공책, 컴퓨터, 옷 등), 서비스(핸드폰, 인터넷강의, 교통수단 등) 등으로 단순히 세분화할 수 있다. 먼저 학생인 나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

기하면서, 물건별로 구입처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점, 상점의 위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구입하기 좋은 물건과 구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물건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왜 이런 상점이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상점의 입지 문제와 분포에까지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다양한 상점의 입지와 분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이유를 파악하면서, 소비자인 나의 입장과 상점을 개설하는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부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소개하고 지식을 소개하는 방법과는 달리 접근방법과 접근과정 그리고 접근주체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가 구입한 상품이 어떻게 해서 그 상점까지 왔는가 즉, 유통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쌀을 예로 보면, 농촌지역의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서 상점에 배달이 되었고, 그 전 단계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쌀은 도정공장으로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 어느 공장에서 생산이 되어 어느 유통과정을 거쳐 상점까지 유통이 되고 내가 구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번째 단계는 유통과정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그 다음 단계는 생산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농산품의 경우 벼의 재배조건, 그에 따른 생산지역 분포, 생산지역인 농촌의 특성, 농업의 변화, 농업의 환경적 측면 등을 학습내용으로 할 수 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원료, 원료의 분포와 이동, 생산지역의 분포와 특성, 집적의 이익, 기술(생산방식)의 변화, 기업의 구조 변화, 시기별 주요 공업의 변화, 공업생산과 환경적 측면 등을 학습내용으로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생산자 서비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 교통 및 통신의 발달에 따른 영향, 인터넷의 발달 및 사회 변화 등에 따른 영향 등을 학습내용으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학습자인 '나'를 중심으로 '소비 → 유통 → 생산'의 스토리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난 다음, 더 큰 지역 스케일인 '우리나라' 중심의 틀로 내가 속한 국가 단위의 스토리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국가 스케일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의 특성과 변화를 교육내용으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 변화, 무역 상대국, 해외 투자 및 생산 특성,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국적 기업, 무역수지 등을 학습내용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단위의 국가 내 또

표 14. 학습자 중심 스토리 구성 방법의 단계 및 사례

초점	나			우리나라		
단계	소비	유통	생산	무역	지역개발	환경문제
사례	휴대폰은 어디서 구입했나?	어떤 과정을 통해 판매점까지 왔을까?	어디에서 생산된 것일까?	외국과의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역 불균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환경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 15. 문제 탐구식 방법의 단계 및 사례

단계별	인식하기	의문갖기	문제해결하기
사례	공업이 집중된 지역(자료 제공)	왜 이 곳에 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	공업입지요인, 공업 활동의 변화

는 외국의 지역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학습 내용으로 할 수 있다(표 14).

이와 같이 '나' 중심과 '우리나라' 중심의 학습자 중심 스토리 구성 방법은 기존의 교육과정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학습자 중심이기 때문에 학습과정에서 왜 학습하는가, 학습내용이 얼마나 나에게 유용성이 있는가를 학습자 스스로 알 수 있으며, 지식의 파편화와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고, 단원 전체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의 드라마 작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2)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

기존 교육내용 구성 방법의 문제점인 설명식과 나열식의 내용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제시 방법의 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과서와 교사가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서술 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 제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은 그동안 학습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식시키고,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그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즉, '인식하기 ⇒ 의문 갖기 ⇒ 문제해결하기'의 과정을 통한 교육내용 구성 방법은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구성과 교수-학습 과정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탐구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교육내용 구성 방법을 구체화하면, 먼저 학생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경제지리적 문제를 인식시켜 주는 단계로 '이런 사실이 있다(인식)'와 같이 일상생활에 존재하

는 문제를 경제지리적 관점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단계이다(1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와 같이 인식한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형성하는 단계이다(2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인식하고 의문을 품은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럴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의 과정에서 의문의 해결과정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다(3단계).

즉, 학습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시키고(지리적 인식, 인식하기),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고(의문 갖기 또는 문제 인식),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문제해결과정과 교육내용)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1단계에서 적절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중요하고, 2단계에서는 교사의 적절한 유도 능력과 학습자의 사고과정이 중요하며, 3단계에서는 학생의 지식 탐구 능력이 중심이 된다.

경제지리 교육내용으로 구체화하면, 1단계인 '인식하기' 단계에서는 지도나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업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제시하고 '공업이 집중 분포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2단계에서는 공업이 집중된 지역의 자료를 보면서 '왜 이 지역에는 공업이 집중되었을까?'와 같은 의문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공업입지요인, 산업구조의 변화, 공업 집적의 이익, 다국적 기업에 의한 생산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표 15).

이 방법을 통하여 경제지리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원명을 '지리적 인식'이나 '의문 갖기'의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과정의 단원명을 학습의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고, 학습의 시작점을 제시함으로써 단원명이 학습의 범위를 제한하기 보다는 학습방향을 유도하는 형식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3.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대안

새로운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의 대안은, 전체적인 틀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 중심으로 하고, 구체적인 단원 설정에서는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다. 즉, 전체 구조는 학습자인 '나'를 중심으로 소비, 유통, 생산의 틀로 상품과 서비스의 연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스케일을 확대시켜 '국가' 중심으로 무역, 지역개발, 그리고 환경문제를 교육내용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내용 구성 방법은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으로 지리적 문제 인식이나 의문 형태를 단원명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대안에 의한 교육내용 구성 방법은 학문 중심의 구성 방법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설명적이고 나열적인 교육내용 제시 방법을 탐구 및 문제 해결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을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구성에서 더 다양한 구성 방법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

대안을 교육과정 형식으로 제시해 보면(표 16), 학습자를 중심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내용을 소비, 유통, 생산으로 구분하고,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 지역개발,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내용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6개의 대영역별로 학습의 시작점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제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며, 인식한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원명을 설정한다. 이런 방법으로 교육과정의 형태가 구성되면 교과서는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며, 교수·학습 상황은 학습자 스스로 탐구해가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상에서 경제지리 교육내용은 1-2개의 대단원 수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대안을 단원 형식으로 제시하면 하나의 단원은 대단원 규모가 될 수도 있고, 중단원 규모가 될 수도 있으나, 단원의 내용 전개는 인식 단계, 의문 갖기 단계, 의문 해결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표 17). 기존 방법과의 차이점은 인식과 의문

표 16.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대안

초점	세분	인식하기	의문갖기
나	소비	1. 우리는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1. 상품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2. 상점은 왜 거기에 있는 것일까?
			3. 상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유통	2. 내가 구입하는 물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동한다.	1.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가?
			2. 교통과 통신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3. 물건마다 이동경로가 다르지 않을까?
생산	3. 다양한 지역에서 물건을 생산되고 있다.	1. 농산물은 어디에서 생산될까?	
		2. 공산물은 어디에서 생산될까?	
		3. 서비스업은 어떻게 공급될까?	
국가	무역	4.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다.	1. 어떤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을까?
			2.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3. 무역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지역개발	5.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역이 변화했다.	1. 지역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2. 지역개발은 왜 하는 것일까?
			3. 지역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환경문제	6. 우리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1. 자원개발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나?	
		2. 도시화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나?	
		3. 산업화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나?	

표 17. 단원 형식의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

구분	내용
인식 단계 (중단원)	우리는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의문 갖기 (소단원)	1. 상품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2. 상점은 어디에 있는가? 3. 상점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4. 우리는 상품만 소비하는가?
의문 해결 (학습내용)	1) 상품에 따른 산업별 분류 2) 산업구조의 변화 3) 다양한 판매형태 4) 상품에 따른 차이 5) 상업입지 이론과 현실 6) 소비유형의 변화

단계를 학습내용 이전에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목적을 학습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의한 설명이 아니라 학습자의 탐구를 기본으로 하고 교사가 도움을 주는 형태가 된다. 또한 단원명이 인식 또는 의문의 형태로 제시되어 결과가 아닌 시작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최근 학문의 성과를 반영하는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초중고의 교육내용 배분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나' 중심의 소비 - 유통 - 생산에 관련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국가' 중심의 무역 - 지역개발 - 환경문제를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지리 교육내용에 한정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교육내용 설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존 방법의 문제점을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 방법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과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을 결합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교육내용 설정의 특징으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지역개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경제활동 부분이 경제영역으로 흡수되어 약화되었다. 중학교 과정은 1차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

는데 고등학교와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통사회(한국지리) 과목은 통합과정으로 구성될 경우 계열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한국지리 과목은 2개 대단원으로 설정되어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세계지리 과목은 입지보다는 세계화와 이동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지리 과목은 6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1차와 2차 산업의 비중이 줄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기존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문제점을 추출해 본 결과, 교육내용 선정 측면에서는 단원 구성 방법은 학문 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고, 단원 제목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보다는 핵심 주제 중심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론서와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문의 발전과 교육내용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 제시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단원 제시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내용 조직 방법에서는 교육내용이 전체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 학문중심의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내용전개가 하향식의 설명식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 특히 지역개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셋째, 새로운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의 대안으로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과 문제 탐구식 구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스토리 구성 방법에서는 학습자인 '나'와 '우리나라'를 초점으로 경제지리 교육내용을 총 6개 단원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탐구식 구성 방법으로 인식하기 ⇒ 의문갖기 ⇒ 의문 해결하기의 3단계 내용전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전체 구조와 1개 단원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개편 시기에는 짧은 시간에 교육과정의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리교육과정 전체와 함께 각론 수준에서 각 영역의 최근 변화 등을 반영한 수정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다양한 선택 기회를 부여하여 보다 의미있는 교육과정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2, 국민학교(1992-16호), 중학교(1992-11호), 고등학교(1992-19호) 교육과정.
- 교육부, 1997, 사회과 교육과정(1997-15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회과 교육과정(2009.03).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초·중등 교육과정(2012-31호).
- 박삼욱, 1999, 「현대경제지리학」, 아르케.
- 서민철, 2007,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지역개발 단원 서술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5(3), 265-285.
- 손명철, 2013, “학습자 주도적인 탐구형 세계지리 교과서 모형 탐색: 영국의 고등학교 <World Geography: Case Studies>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17-128.
- 송언근, 2012, “드라마적인 교육과정의 구성: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을 대상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 1-17.
- 안종욱, 2012, “고등학교 「경제지리」 과목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 33-48.
- 이희연, 2011, 「경제지리학」, 법문사.
- 전국지리교사연합회, 2011,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인문지리)」, Humanist.
- 조성욱, 2000, “고등학교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대한지리학회지, 35(3), 455-471.
- 조철기, 2011, “지리 교과서에 서술된 내러티브 텍스트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1), 49-65.
- 조철기, 2013,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 지리교육과정과 내러티브 지리교과서의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1), 49-63.
- 최원희·윤영오, 2004,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지리 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1), 99-125.
- 한주성, 2009, 「경제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안영진·이종호·이원호 역, 2011, 「현대 경제지리학강의」, 푸른길 (Coe, N., Kelly, P., and Yeung, H., 2007, *Economic Geograph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김희순·안재섭·이승철·이영아·정희선 역, 2010, 「현대 인문지리」, 시그마프레스(Rubenstein, J.M., 2010,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교신 : 조성욱,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 Sungwook Cho, 561-75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 고 일: 2014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4일

투고확정일: 2014년 6월 10일